특별기고

당당한 노년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화중

나는 환갑을 지난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한마디로 노인이다. 그런데 노인은 자녀· 가정·사회·국가가 부담으로 느낀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자녀·가정·사회·국가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오늘까지 살아온 내가 노인이라고 해서 부담이 되는 삶이 된다면 서글플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일이 없도록 당당한 노년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노인을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은 5가지이다. 첫째, 아프고 체력이 약해진다. 둘째, 일거리가 없어 생활력이 약해진다. 셋째, 소득이 저하되며 경제력이 약해진다. 넷째, 사람간의 왕래가 적어지고 사회생활이 약해진다. 다섯째, 죽음에 대한 고심으로 삶에 대한 자신감이 약해진다.

자녀·사회·국가로부터 독립

이에 따라 노인은 자녀와 가정에 의존하게 되고 사회와 국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은 부담을 느끼게 된다. 이를 뒤집어서 노인이 부담이 되지 않을 조건을 찾아보면, 건강해야 하고, 일거리가 있고, 소득이 있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영적으로 평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학회장, 협회장,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을 지내면서 노년의 당당한 삶을 위한 지식, 정보, 경험을 얻었다. 이를 토대로 자녀, 가정, 사회, 국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한국적 모델을 구상해 왔다. 이제 나 자신의 노년을 준비해야 할 때가 되어,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서 여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또한 이 모델이 다른 농어촌 지역에도 많이 만들어져서, 대도시를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노인들이 당당한 노년의 행복을 찾게 되고 농촌에는 활력 있는 인구가 새롭게 유입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의 설계를 간략히 소개해 보겠다.

곡성군 보성강변 13만2천232㎡ 단지에 울타리 없는 99.174㎡의 예쁜 집 160여 가구를 지어 아름다운 공원 속 정원마을을 조성하려고 한다. 이름 하여 '강빛 마을'이다. 이 마을의 조성을 주관하기 위하여 (주)리버벨리가 설립되었다. 나부터 이 마을에 661.16㎡를 분양받아 전용택지 264.464㎡에 99.174㎡의 예쁜 통나무집을 1억 5천만원 내지 2억원 정도(땅값 포함)로 지을 계획이다. 이 마을에 살면서 당당한 노년의 삶을 5가지 측면에서 누리려는 것이다.

첫째 일거리이다. 꽃을 키우는 방법과 실내디자인도 배워 우리 집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예쁜 집으로 가꾸는 일이다. 그리고 2층 방 2개를 펜션으로 운영하는 일이다.나는 강빛마을의 예쁜 집 객실 2개의 호텔 사장이다.

둘째, 소득이다. 객실 2개 평균 20일 운영하여 월 최소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계획이다. 펜션운영을 원하는 가구를 모아 리버벨리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관리한다.

셋째, 건강관리다. 보성강가 숲속 예쁜 통나무집에서 잠이 깨어 꽃이 핀 체력단련장에서 아침체조를 하고 싱싱한 무공해 야채로 아침을 먹고 나면, 꽃에 물을 주며 꽃의 아름다움에 취하여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감기 설사 등 작은 건강에서부터 큰 질병까지 강빛마을의 건강관리체계를 내가 만들어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득·건강·소통 잃지 말길

넷째, 사람들과 교류이다. 강빛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미술, 여행, 사진, 요리 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자녀, 친척, 지인들을 초대하여 공기 좋고 아름다운 강빛마을에서 쉬어가도록 할 것이다.

다섯째, 인생철학을 정립하고 신앙을 갖는다. 곡성은 각종 종교의 유서가 깊은 고장이다. 서로의 가치관을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배운다.

노인일수록 자녀, 가정, 사회, 국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특히 자녀들에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강빛마을은 각자 자기 집에 살면서도 당당한 노년의 삶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그런 마을이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부조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많지만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노인도 많다. 이런 노인들이 스스로도 행복하고 농촌도 살리는 이런 삶을 추구한다면 당당한 노년이 되지 않겠는가?

〈여성단체협의회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번영 계기되길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2일 평양 방문길에 오른다. 지난 2000년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7년여 만의 일이다.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인 만큼 국내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는 각별하다. 무엇보다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예사롭지 않다. 한반도 평화의 최대 현안인 북한 핵문제가 베이징 6자회담을 통해 타결 일보 직전에 있다. 최종 발표만을 남겨두고 있는 '북핵 연내 불능화'가 관철되면 한반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정부도 한반도 평화정착을 정상회담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전용차를 타고 육로를 통해 북한을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직접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은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그만큼 한반도 평화정착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은 6·15공동선언의 연장선에 있다. 6·15공동선언이 반목과 대결의 낡은 이데올로기를 청산하고 통일의 길로 나아가는 시발점이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번 회담에 기대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점에서 비판과 경계의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일방적인 퍼주기'라는 비난과 함께 아리랑 공연 관람과 관련, 이념적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단순한 경제적 차원이나 이념으로 접근해선 안된다. 반목과 대결보다는 화해와 협력, 한반도 평화라는 대승적 시각으로 풀어가야 한다. 국민의 의식도 성숙돼 있다. 남북은 정상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경제협력 확대 등 한반도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밑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광주·전남 현안 대선공약에 꼭 반영돼야

광주시와 전남도가 1일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반영할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대선 공약화 사업은 호남고속철도 조기완공 등 광주·전남 공동 과제 8개를 비롯해 광주 27개, 전남 21개 등 56개에 이른다.

광주·전남의 공약화 사업은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추진돼야 할 주요 현안이다. 그동안의 소외와 낙후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대하고도 시급한 생존 전략인 것이다.

문제는 이들 주요 현안을 어떻게 대선 공약으로 관철시키냐는 점이다. 모든 지자체가 12월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선 공약화를 통한 정치적 해결이 까다로운 정부 예산확보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현안을 공약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역 여론을 무기로 각 정당과 후보를 압박하는 구태의연한 전략만으로는 안 된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현실성을 각 정당의 후보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논리개발이 있어야 한다. 타 지자체 공약화 사업과의 차별성이 돋보여야 한다는 얘기다.

56개에 달하는 지역 정책과제들이 모두 공약화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반드시 채택되어야 할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는 선택적 전략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이번 대선공약화 사업에 공동 과제를 채택한 것은 바람직하다. 개별 공약화에서 벗어나 상생의 힘을 모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그만큼 대선 후보들에게 주는 압박감이 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현안의 대선 공약화는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지역 정치권은 정파를 떠나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어느 정당, 후보가 지역 현안의 공약화에 가장 적극적인가를 지켜볼 것이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NGO 칼럼

최지현

온실가스 감축 남의 일 아니다

추석과 대통령 선거 경선 등으로 크게 주목 받지 못했지만, 지난 9월2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킨 지구촌을 위한 중요한 회의가 열렸다.

국가원수 80여명 등 150여 개국 정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가 그것이다.

기후변화를 주제로 이만큼의 큰 규모의 국제회의는 그간 없었기에, 당일 행사장 주변은 크게 고무된 언론인과 환경단체 활동가들로 북적였다고 한다.

'미래는 우리 손에(The Future in Our Hands)'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는 국가 간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규정한 교토의정서 시한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의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주도한 회의였다.

반기문 총장은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면서도 기후보호 정책에 늘 한발 물러나 있으려는 미국 부시정부에도 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그간 집요하게 요구해 왔고, 이번 논의의 장에도 부시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했다고 한다.

이런 반기문총장의 적극적인 활동은 기후변화의 문제 대응이 국가별 노력만으로는 불충분하므로 국제적인 틀 안에서 대처해나가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유엔이 중심에 서서 향후 협상들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지인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비준을 거부하면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 미국으로 인해 2012년 시한이 완료되는 교토의정서는 큰 성공을 거두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결과에 미리 대비하고, 따로 노는 미국 때문에라도 반기문총장의 의지처럼 유엔이 주도하는 국제적 틀 안에서 대책들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절대 절명의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교토의정서에 의한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로 기후변화에 일조하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우리 스스로가 미리 준비해 가지 않음으로써 국제관계에서의 후퇴해 국가적 위기, 지역의 위기가 올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체결된 역사적 나라이기도 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각별할 것이다. 하지만 비준 발효 2년이 지난 지금 온실가스 양이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일본 환경단체 관계자는 일본 정치권과 행정의 의지부족이 큰 이유라고 구체적 사례를 들면서 말한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보호를 위해 지방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 지난 3월 광주시에 기후보호대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다.

도심안에서 차량은 늘어만 가고 있고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의무 감축량을 할당 받았지만, 부족한 대책마련과 시민의 실천 유도책 미흡으로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원자력발전소 증설로 마련하겠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광주시도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르지 않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 팀장〉

찰칵! 동물세상

맹금류의 막내 '황조롱이'

'맹금류'라고 부르는 새들은 다른 새들을 잡아먹고 산다.

황조롱이는 맹금류다. 그 이름만으로는, 아니 눈으로 보기에도 감히 누군가를 해치며 살 것으로는 상상할 수 조차 없는 작고 예쁜 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동물원에 있는 이 황조롱이는 맹금류 중에서 비교적 갇힌 환경에 잘 적응해 내는 새다. 황조롱이가 속하는 매과의 다른 새들은 대부분 끊임없이 탈출을 감행한다. 그러다 자기 스트레스를 겪으며 스스로를 파멸시킨다.

예컨대 생식 본능을 포기하는 것으로 말이다. 동물원 맹금류들 특징 중 하나가 생식본능을 포기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이다.

환경도 맞진 않겠지만 '살아도 나 하나만으로 족하다, 이 모진 삶은 나 하나로 끝내자'는 의도가 담겨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사진 속 황조롱이는 아직 다 크지 않은 새끼다. 한창 나는 연습을 하다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누군가에 의해 구사일생으로 구조되어 동물원에까지 오게 된 것.

동물원에서 무턱대고 받은 것도 아니다. 재활치료를 한 뒤 대부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내고 돌려보내도 살아나기 힘든 상황, 불구에 가까운 종류들만 거두어 키운다.

도심의 자연이 파괴되면서 종종 이런 맹금류들이 아파트 베란다에까지 파고들고 있다. 측은히 여기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미관을 해친다고 내치는 사람들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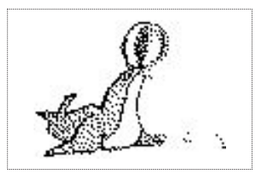
여하튼 도심 근교의 많은 동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無等鼓

물개 드리블



왕년의 축구 스타 '하석주'는 지난 1998년 열린 프랑스월드컵 멕시코와 경기에서 월드컵 출전사상 처음으로 전반 선제골을 넣은 영웅이었다. 그러나 팬들은 그 골보다도, 실속없는 백태를 반칙으로 퇴장당한 장면을 더 강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날 그는 곧바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린샤클럽'의 회원이 됐다. 클럽탄생 이후 36년 만에 두 번째 멤버였다.

가린샤클럽은 지난 62년 칠레월드컵에서 브라질 출신의 가린샤가 칠레와 벌인 4강전에서 2골을 넣은 뒤 상대선수를 걷어차고 퇴장당하면서 만들어진 용어다. 월드컵에서 골을 넣은 뒤 들뜬 상태에서 불필요한 반칙을 범해 퇴장당하는 선수는 자동으로 클럽의 회원이 된다.

펠레와 함께 활약한 가린샤는 불명예스런 클럽의 창시자이긴 하나 실은 '드리블의 제왕'으로 세계축구사에 남아있다. 왼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오른쪽 다리가 6cm 짧은 소아마비였지만 한번에 2~3명의 상대 수비수를 제치는 신기에 가까운 볼 컨트롤과 드리블로 대표팀 데뷔 이후 54경기에 출전해 34골을 넣었다. 드리블의 천재였다.

현란한 발재간은 늘 팬들을 매혹시키지만 한국 팬들에게 가장 기분 나쁜 드리블은 하석주가 뛰었던 그 경기에서 보여준 멕시코 선수 블랑코의 '개구리 점프'였다. 양발로 볼을 잡고 2명의 한국 수비수 사이를 풀쩍 뛰어 나오는 모습은, 마치 우리 축구를 농락하는 듯,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최근 케를론이라는 브라질 선수가 물개가 공을 머리에 톡톡 튕기며 재주를 부리듯 연속 헤딩을 하며 수비수를 제치는 '물개 드리블'을 선보이자 이 꼴을 보다못한 상대선수가 거친 태클을 해 무려 120일 출전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브라질 축구계는 '엄연한 개인기다. 비신사적 행위다'며 시끄럽다. 반칙을 한 선수는 '더 이상 이런 드리블을 할 수 없도록 얼굴을 차버려야 한다'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얼마나 미웠을지 짐작이 간다.

/기현호 체육·여론매체부장 kihh@

등산로 나뭇가지마다 덕지덕지 산악회 표식 자제를

산을 오르내리다 보면 '누구누구, 산에 다녀가다'나 '누구야, 사랑해'등 바위나 나무에 새겨진 낙서들이 많다.

가볍게 긁어 쓴 것이 아니라 칼로 크게 흠집을 내거나 페인트를 사용해 지워지지 않게 한 것들도 있다.

이 같은 낙서들을 긁어내고 약품을 발라야 하는 등 쓸 때보다 훨씬 많은 시간과 여러 사람의 손이 들어간다. 당연히 나무나 바위의 훼손도 불가피하다.

또 산 등산로를 따라 처음부터 끝까지 각종 산악회에서 부착한 표식이 나뭇가지마다 걸려있다. 등산로를 안내하려고 부착한 것 같은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나무를 심는 것만 중요한 일이 아니다.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열봉·목포시 온금동

남 배려하는 공중목욕탕 예절 아쉬워

주말에 공중목욕탕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목격했다.

30대 청년이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있어 알아보니 몸을 씻지도 않고 바로 온탕으로 들어오는 청년에게 노인이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공중목욕탕이니 몸을 씻고 들어 오라"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간섭하느냐"며 "내가 일년 내내 매일 이 목욕탕에 다니는데 별 꼬라지를 다 본다. 재수가 없으려니 더러운 일을 다 본다"며 욕설을 해댄 것이다.

목욕탕에 있던 10여명의 입욕객 중 어느 누구도 젊은이의 행동을 나무라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다.

"지켜야 할 공중도덕을 지키자고 한 말인데 틀린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거들었더니 그때서야 젊은이가 머쓱해하며 수그러들고 나갔다.

그 노인도 언짢은 표정을 지으시며 탕 밖으로 나가 버렸다.

목욕탕에 들어가기 전 몸을 씻고 들어가는 것은 기본 아닌가. 잘못을 지적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성을 내는 사회, 한참 잘못됐다. ▲김기원·광주시 서구 세하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晧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禛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사회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FAX	222-4918〉	〈FAX	227-0118〉	〈FAX	222-8005〉	〈FA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매체부	2200-628	〈FAX	227-9500〉	〈FA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AX	02-773-9335〉
〈FA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